

교 회 소 식

- ▶ **환 영:**
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
주일 예배는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드려집니다.
- ▶ **행 사:**
09/03/23 (주일): 제직회, 남/여선교회 월례회
- ▶ **감 사:**
♥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신 하효경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
- ▶ **알 림:**
 - ◎ 우리교회 안내광고가 나온 글렌데일 코리안/밸리 매거진 (2023년 8월호)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
 - ◎ 8월 27일은 천방욱 목사님, 천정자 사모님 생신 축하로 함께 친교실에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▶ **합심기도 제목:**
 1. 새 가나안 장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
 2. 조성훈장로님: 주의 일을 감당 하실 수 있는 건강주시옵소서
 3. 김왕증: 앞길을 주님께 맡기오니,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
김예림: 주님의 크신 은혜가 새 가정위에 늘 함께 하시고, 축복이와 가족들이 늘 건강하게 하옵소서
 4. 이윤정권사님: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
 5. 지미경집사님/Mr. Bob Purcell: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소서
 6. 강정숙집사님: 건강을 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

지난 주 헌금 드리신 분들	
십일조/주정 /주일	이 천, 이크리스틴, 이장욱, 이정혜, 이영식, 이은경, 김병권, 김명숙, 하효경, 김종구, 김진경, 이윤정, 김정목, 지미경, 이 샘, 이노엘
감사헌금	

50권 33호 2023년 8월 13일

대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(PCIGA)

새 가나안 장로교회

NEW CANAAN PRESBYTERIAN CHURCH



담임목사: 이 천

시무장로: 조성훈 이장욱
반주: 김진경

6338 N. Figueroa St. Los Angeles, CA 90042
☎ (323) 256-7575, www.ncnac.org

주일 예배

12:30 PM

인도: 이 천 목사

경배와 찬양		다함께
기원		인도자
※찬송	28장 (통 28장)	다함께
※성서교독	교독문 21. 시편 34편	다함께
※신앙고백	사도신경	다함께
찬송	315장 (통 512장)	다함께
대표기도		김명숙집사
오늘의 말씀	사도행전 18:1~3	인도자
찬양		이장욱장로
설교	축복의 동역자	이 천 목사
기도		설교자
찬송	539장 (통 483장) 2,4절	다함께
헌금		하효경집사
※봉헌찬송	634장 (통 70장)	다함께
※봉헌기도		인도자
교회소식		인도자
※인사		다함께
※찬송	54장 (통 61장)	다함께
※축도		이 천 목사

※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

봉사와 섬김					
#	구분	대표기도	찬양	헌금원월	천교
33	08/13/23	김명숙	이장욱	하효경	하효경
34	08/20/23	이장욱	김병권/김명숙	하효경	김병권/김명숙
35	08/27/23	김병권	이정혜	하효경	남/여선교회
36	09/03/23	이정혜	하효경	김명숙	김정목
37	09/10/23	하효경	김병권/김명숙	이정혜	지미경

교독문 21. 시편 34편

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

◎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

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

◎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

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

◎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

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

◎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

(다함께)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아멘

성경말씀: 사도행전 18:1~3

- 1 그 후에 바울이 아텐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
-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
- 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. 아멘